

설 가정 예배 순서지



묵상기도		인도자
찬 송		다같이
평소 가족이 즐겨부르는 찬양을 부릅니다		
대표기도		말은이
성경봉독/말씀	 누가복음 3:23~28	말은이
찬 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430장)	다같이
1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복의말		다같이
가족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인도는 가족 중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이 인도합니다.

*축복의 시간에는 먼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십시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주시고 형제간에 포옹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고유한 풍습에 따라 설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비록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흠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부모에게 세배하며 덕담을 나누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고유한 풍습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을 거쳐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족보를 접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심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원은 결국 첫 사람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을 거쳐서 조상 끝에 다다르면 결국 우리의 족보도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매우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자녀들이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조상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세배 돈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들을 내어주신 부모님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모도 자녀들을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밀로 내려가서 예수님에게 다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기록들을 남길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조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설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 각기 풍성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어 봅시다]

- 1 빛 바랜 사진들을 꺼내놓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조상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 2 지난 한 해 동안 부모 자식 간에 서먹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서로 경청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보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내 구체적인 삶터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